2026.08.23 세빛교회 주일 1부 예배
암흑시대에 언약의 불씨로 피어난 룻
본문: 룻기 1장1-15절
김상민 담임목사님

<서론>

▶룻기는 사사시대에 살던 한 여자의 내용이다. 이 시대는 언약을 잃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므로 재앙이 계속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암울한 시대였다. 사사들을 통해 구원을 주지만 늘 자기 소견대로 죄를 행하는 암울한 시대가 사사시대이다. 그러나 룻기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 소견이 아닌 언약을 붙든 룻의 대한 이야기이다. 룻기는 밝고 희망이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 지난주 언약의 대한 말씀을 전했다. 그리스도의 약속의 내용이 언약이다.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놀랍게도 언약을 붙든 이방 모압 여자를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시선은 육신 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의 응답을 받길 축원한다.

<본론>

1.자기 소견을 따라 간 엘리멜렉 가정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에 유다 지파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나온다.*[룻1:1-2]* 베들레헴에 살던 때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갔다. 나오미에게는 말론과 기룐 두 아들이 있는데 이름의 뜻이 말론은 병약이고 기룐은 쇠약과 낭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기 현실의 삶을 반영하는 이름을 짓는 경향이 있는 시대적 배경을 볼 때에 이미 모압으로 가기 전 베들레헴의 삶 속에 고통이 많아 이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모압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한 이유는 언약적인 고려함은 전혀 없고 오로지 육신적인 이유로 자기 소견에 따라 이주를 하게 된 것이다. 모압이라는 곳은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나라로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다. 재앙을 피하려고 갔는데 나오미는 모압에서 뜻하지 않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두 아들들이 모압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후에 두 아들도 죽게 되는 일을 겪어 결국 여성 셋만 남게 되는 절망의 상황을 만난다. 더 이상 모압에 살 이유가 없어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단을 한다.

2.자기 소견이 아닌 언약을 선택한 룻

▶나오미가 가나안 땅을 가려고 결심한 이후 자부들에게 말을 한다. 내게 메이지 말고 각자의 인생을 선택해 가라고 나오미는 말을 한다. 첫째 자부는 자기 민족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룻은 육신적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가기를 결단한다. 룻도 모압 여인이지만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의 가정의 시집을 와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발견하고 붙들게 되었다. 룻에게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지만 언약을 놓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한다.*[룻1:16-17]* 그의 인생을 이끌 왕을 찾은 것이다. 그 시대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다. 이것은 효심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고백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다. 세상의 삶에는 누구나 어려움을 만난다. 하나님의 백성도 어려움을 만난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는데 상황 탓하고 그 속에 빠져 실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지금 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럴 때 오히려 그 어려움과 문제가 인생의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바로 룻의 인생이다. 가장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다. 성도는 어려울 때 잘 인도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는 불신앙과 좌절을 해서는 안 된다. 문제에 빠져 감정에 휩싸이는 자기 소견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 나를 둬야 승리할 수 있다.

3.하나님의 시선을 머물게 한 자의 응답

▶큰 역경과 어려움을 만난 후 모압에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들의 현실은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다. 특별히 룻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인 베타적인 현실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이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선택한다. 내 생각, 내 소견을 접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사사시대의 특징인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따르던 그 시대 하나님의 시선은 룻에게 있었다. 그런 룻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만남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삶에는 만남이 중요하다. 우리의 만남이 좋은 만남일 수도 있고 좋은 만남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도 될 수 없다. 사탄은 우리의 만남을 실패시키고 왜곡시킨다. 만남을 병들게 하고 자신이 병들어서 만남을 차단 시켜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아야 한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 이 만남은 좋은 유익한 차원의 만남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기 위한 축복된 만남이다. 언약을 이루시고 인생에 복을 받는 만남이었다. 외견은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룻2:2-4]*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한 중요한 사람이다. *[룻2:1,12,20]*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언약을 사모하여 따라온 룻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단순히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축복이 아니라 꺼져가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불씨가 성취되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 메인의 축복 받을 자요, 응답 받을 자로 언약을 회복하는 자로 가정과 후대까지 말씀의 이루심의 응답 받는 핵심의 축복을 받길 바란다.